

환경오염되면 지구의 생명체 멸망

■ 인터뷰 : 박석동 기획부장 ■ 일시 : 8월 6일 오후 5시 ■ 장소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실

■ 바쁘신 시간 중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의 설립 취지는?

20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물질문명은 그 어느 때 보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소비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발전시키고 누려온 문명의 수준은 환경위기로 인해 생존의 뿌리를 잘라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된 것은 문명적이고 좋은 것이며, 개발되지 않은 것은 '미개'한 것이므로, 서구가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과 '선진'을 이루어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3세계를 포함한 동양권의 많은 국가들은 전통의 가치관과 자연순환적 생활양식을 버리고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여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서구적 발전모델이 낳은 환경위기와 사회문제까지 동시에 발생시켜 바야흐로 전 세계는 환경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가진 자 중심으로 진행된 개발과 부의 편중 때문에 국가간 또는 개인간

의 빈익빈, 부익부의 편차를 점차 늘려 놓았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은 지구 온난화와 체르노빌 참사처럼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인류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지요.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인류가 봉착한 이러한 현재의 난관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의 활동이 다른 환경단체들의 활동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의 생태적 사유와 생명운동의 이념은 환경의 차원을 넘어 지금의 제반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연기법(緣起法)을 설하셨지요. 그 진리의 법이 설해진지 2천6백여년이 지난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너무나 명백하게 연기법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는 우주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현대의 환경문제는 이 연결 고리를 인류가 스스로 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교육원은 이러한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인간이 자연에서 비롯되었으며, 자연에 의해 살려짐,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자연순화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은...

본 교육원의 주 사업은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을 교육활동을 통해서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의 실천과 사회적 활동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지요. 이 일환으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교육이 '생태학교'와 '생명운동 아카데미'입니다. '생태학교'는 인간중심적인 이기와 편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생태적 삶의 중요성과 생태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대중강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다.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을 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인의 실천과 사회적 활동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좌로 현재 20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생, 청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 토론, 현장답사, 실천, 자연명상, 숙박교육 등의 교육을 통해 생태적인 대안사회를 위한 실천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생태학교'가 생활을 중심으로 나의 변화를 살펴보는 반면, 새로운 문명의 대안을 찾는 작업으로는 '생명운동 아카데미'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92년 '생태주의 사상 모색강좌'를 시작으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분야별 대안이론의 맥을 짚어 오고 있는데 제4맥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제5맥 '현대과학사상의 흐름과 환경문제', 제6맥 '과학사상과 환경문제', 제7맥 '환경친화적 대안경제체제의 모색', 제8맥 '대안적 생활양식과 녹색 소비자운동', 제9맥 '생명운동과 대안적 환경교육', 제10맥 '생태주의와 에코페미니즘', 제11맥 '생태위기시대의 공동체운동', 제12맥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제13맥 '생태적 각성을 위한 수행과 영성·깨달음', 제14맥 '녹색운동의 이념과 전략', 제15맥 '에코아나키즘-자율적 생태공동체를 위하여' 등의 내용이 다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생명운동 아카데미'는 매 회

를 끝낼 때마다 전체 강좌를 종합하는 심포지엄을 수강생을 비롯하여 각계의 전문가, 활동가, 관심있는 일반인과 함께 마련하여 이론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의 강좌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 형태로 출판이 되었는데, 「동양사상과 환경문제」나 「공동체를 찾아서」라는 책은 이 분야의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대안이론의 흐름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활동가, 지역활동가, 종교인 등을 위한 '환경지도자 워크숍'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종교환경회의가 창립되어, 종교환경단체 지도자 및 활동가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태사회를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그 동안의 활동 중 특히 일반인이나 활동가에게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강의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으로 '깨달음의 장'과 '나눔의 장'이라는 수련 교육 프로그램과 '생태선재기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깨달음의 장'은 4박5

일간 집중적으로 자신과 자연 더 나아가 세계의 관계를 관찰해 보고 아무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진정한 자기로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며, '나눔의 장'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에 좀 더 중심이 주어졌습니다.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수련 프로그램은 문경에 있는 정토수련원에서 주관하여 특정한 형식과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선재기행'은 기행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생태기행과는 다르게 자연생태관찰이 목적이 아니라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선지식을 찾아서 떠나, 그 분들의 삶을 보고 대안적 삶과 지혜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흙집기행, 뒷간기행, 공동체기행, 생태마을기행, 살림기행 등의 이름으로 진행된 '생태선재기행'은 참가자 모집부터 후속 연락까지 인터넷과 이메일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안적 실천운동으로 '쓰레기 제로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속해 있는

정도회에서는 몇가지 실험을 전개해 왔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쓰레기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실험들은 일반 사람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강도가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밖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제로화, 음식물 쓰레기의 완전 퇴비화 및 음식문화의 전환으로 음식 쓰레기 줄이기, 세숫물은 반드시 받아서 쓰며, 행굼물은 받아놓았다가 화장실 중수로 사용하기, 화장실 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인도식 뒷물바가지 이용하기, 캔 제품 사용의 억제를 위한 캔 제품 회관 내 반입금지 등 우리가 먼저 해보고 주장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이 현실이고, 우리들의 소비적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생태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소박함에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을 선택한 이상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작은 대안이나 마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 '쓰레기 제로운동'은 시민실천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전에 실제로 실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해보고 주장하자는 취지와 더불어 공동체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가들의 소비수준을 줄이고 생활양식을 바꾸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쪽으로 우리의 의식과 삶의 양식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이런 실천을 바탕으로 일반시민들의 가정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프로그램화하는 작업도 '쓰레기 제로운동'이 해야 할 중요한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 **향후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지요.**

위에서 언급한 활동중의 '쓰레기 제로운동'은 단순히 쓰레기배출의 제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모든 환경문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과정에는 물 문제, 에너지 문제, 대기오염 문제, 토질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활관습과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소비하고, 자발적 가난과 주체적 청빈에 대한 우리의 소명의식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쓰레기 제로운동'의 사회화를 위한 시민실천 확대 프로그램의 운영이 앞으로 가장 큰 활동계획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태적 사유와 생명운동이념의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과 연구작업, 출판작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지탱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탱 가능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의미를 갖고 국내 환경 및 지구 환경 보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윤리관

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탱 가능한 생활양식이란 모든 사람이 생명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이 지구를 다른 생물종이나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철학인 '지탱 가능한 생활양식'은 환경보전을 실천한 조상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자연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생활양식에는 자원절약과 자연보호, 자연에 대한 외경심,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이 잘 드러나 있지요. 동학사상, 민간신앙, 조상들의 생활관습, 불교사상과 전통사찰에서의 생명존중사상, 풍수지리에 의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에도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생명사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산업사회 이후 인간이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이용의 규모와 속도가 자연환경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비생활과 삶의 패턴을 돌아보고 행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할 시기고 생각합니다.

■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다양한 양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환경적 약자 즉, 여성, 노인, 어린이를 비롯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환경적 피해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동시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개발논리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탱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송해영<본지 객원기자>